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3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산업입지과	담당자	• 산단개발팀장 • 담당자	유상철 ☎440-4671 임채선 ☎440-467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지 공모

- 산업시설과 판매·주거·공공시설이 한 곳에 -
- 근무환경 개선, 편의·휴식시설 확충, 업무효율 증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3일자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해 민간주도의 복합용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모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복합용지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1969년과 1974년에 각각 조성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는 용지별로 입주가능 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공장 위주로 토지가 활용되어 왔다. 특히 근로자의 작업장과 각종 편의·주거시설들이 격리되어 있는 근무환경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으로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비공해 업종, 첨단산업 전환, 문화산단 조성 등 인근 지역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합용지제도 도입 취지와 산업 트렌드 변화 흐름에 맞춰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과 판매, 주거, 공공시설 등을 한 곳에 입주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목적이다.

이번 공모에서 복합용지의 총량은 부평·주안 산업단지 각각 22천㎡, 68천㎡으로 복합용지 전환 가능 지역은 산업단지 전 지역으로 하되, 주간선도로 100m 이내 지역, 역세권 반경 250m 이내 지역, 인천교공원 및 가좌로 12번길 변 녹지 100m이내 지역, 또한 인천광역시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인정하는 지역이다.

최소 개발규모는 부지 면적 1만㎡ 이상이고, 복합용지의 50% 이상을 산업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향후 공모에 선정된 토지는 도입시설에 따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부평·주안산업단지를 첨단업종 유치 가능한 산업구조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부족한 지원·편의시설을 확충

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목적이며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